

사내 벤처로 바이오메디컬의 미래를 준비하다

국내 대학, 바이오 벤처 창업 잇달아
고려대, 국내 대학 중 가장 먼저 설립
17개 자회사, 전체 기업가치 2563억
휴니버스, 의료 업계에서 주목받아

촉망받는 미래 산업인 바이오메디컬에서 대학은 흔히 '산·학·연·병'으로 불리는 협력체제의 중요한 축이다. 요즘 국내 대학들은 산업을 돕는 협업 파트너의 역할을 넘어 우수한 자체 인력과 이들의 겸업규제 완화를 통해 직접 벤처 기업을 창업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이나 부속병원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이를 통한 벤처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17개의 벤처 자회사를 갖고 있는 고려대의료원 의료기술지주다.

●병원 내 유망 사내 벤처 발굴 지원

2014년 6월 설립된 고려대의료원 의료기술지주(정식명칭은 고려대학교 의료기술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조)는 대학과 병원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특허와 같은 성과물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사업화의 성과가 대학과 병원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격적인 국내 첫 병원 의료기술지주로 현재도 벤처 발굴과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곳은 사실상 고려대의료원 의료기술지주가 유일하다.

2014년 출범 당시에는 관련 법규가 갖추어지지 않아 고려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출발했다. 같은 해 8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보건 분야 활성화를 위해 병원이 자체 의료기술특허를 사업화할 수 있는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됐다. 이



2014년 설립한 고려대의료원 의료기술지주는 기술력을 가진 유망한 사내 벤처를 적극적으로 발굴, 투자해 현재 전체 기업가치 2563억원에 달하는 17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사진은 의료기술지주의 사내 벤처를 통해 장기적 미래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고려대의료원의 서울 안암병원 전경.

사진 | 고려대의료원

후 기술 출연과 수익 배분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의료기술지주의 운영은 고려대의료원 산하협력단인 한다. 의료기술지주는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사내 벤처를 발굴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가 결정되면 20%의 지분을 확보해 자회사로 영입하는데 2021년부터는 지분을 10%로 낮췄다.

고려대의료원 의료기술지주의 자회사 벤처기업은 총 17개다. 조직상으로는 고려대 기술지주의 손자회사로 분류된다. 아직은 대부분 창업이력이 일천한 스타트업 수준이지만 일부는 의미있는 성과를 내는 곳도 있다.

하반기 기술특례시장에 도전하는 신경제질한 치료제 업체 뉴라클사이언스, 신속진단기트 업체 바이오젠텍, 유방암 표적치료제를 개발해 전임상을 준비하는 테라켄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기술지주의 17개 자회사 전체 기업가치는 2020년 말 기준 2563억원이다.

사내 벤처기업이 모두 의료기술지주의 자회사가 되는 건 아니다. 고려대의료원에서는 5개의 사내 벤처가 따로 출범했다. 교수들이 원천기술을 개발해 외부 벤처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

다. 2020년 23건의 기술 이전이 이뤄졌으며 계약금 규모도 60억 원에 이른다.

●휴니버스, P-HIS 솔루션 사업으로 주목

최근 의료기술지주의 자회사 중 주목할 곳은 (주)휴니버스다. 2017년 설립된 이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국가혁신성장동력 전략프로젝트인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P-HIS 솔루션은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정보, 유전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각종 건강 데이터를 수집해 클라우드 형태의 병원정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플랫폼이다.

환자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진료대기시간 단축 및 만족도를 높이고 진료 정보 교류를 통한 불필요한 검사 중복을 줄일 수 있다. 병원도 처방요류를 방지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진 업무패턴을 분석해 진료스케줄 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환자에게는 정밀 맞춤형진료 제공이 가능해지고, 축적된 의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솔

고려대의료원 의료기술지주 자회사	
혁신신약 개발기업	
회사명	설립연도
뉴라클사이언스	2015년 10월
테라켄	2017년 2월
셀버텍스	2017년 2월
마이오텍 사이언스	2019년 9월
헤지호그	2018년 11월
P-HIS 및 의료 빅데이터	
회사명	설립연도
휴니버스	2019년 6월
디지털 치료제 및 의료기기 개발	
회사명	설립연도
바이오젠텍	2015년 11월
엑스퍼트	2018년 11월
아라레연구소	2016년 1월
오스힐	2014년 11월
엠엔비메디텍	2016년 6월
뉴라이브	2018년 4월
휴스파인	2016년 9월
휴서카디안	2020년 2월
사회적기업 및 기타	
회사명	설립연도
좋은 운동장	2019년 9월
호랑이 가게	2020년 3월
내추럴 포레스트	2016년 3월

선, IoT 기반 디지털 치료제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휴니버스의 주요 사업 분야는 이러한 P-HIS 솔루션의 보급·확산과 운영을 비롯해 정밀의료 연계 플랫폼, 정밀의료 빅데이터 등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월에 상급종합병원인 고려대 안암병원에 국내 최초로 P-HIS를 적용해 현재 100%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어 7월 31일에는 고려대 구로병원이 도입했고, 9월에는 고려대 안산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코로나 완치자 백신 1회로 항체 생성” 명지병원 임재균 교수팀, 연구 논문 학술지 게재



코로나19 완치자는 코로나19 백신을 한번 맞는 것으로도 충분한 항체가 생긴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명지병원 임재균 교수(진단검사의학과·사진)팀은 '자연감염자의 백신 접종 후 항체가 변화'

연구 논문을 대한의학회 학술지 'JKMS'에 발표했다.

임재균 교수팀은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의료진 2명의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중화항체 생성 여부와 이상 반응을 1년간 추적했다. 이들은 1차 접종 후 혈액 검사에서 면역글로불린항체와 중화항체가 코로나19 자연감염 후 항체가의 30~40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2차 접종 후에는 1차 접종 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임재균 교수는 “완치하면 부스터 접종의 효과가 있어 1회의 백신 접종으로도 충분한 항체가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완치자에 대한 2회 접종 지침을 1회로 바꾸면 백신을 절약해 부족한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개인에게는 2차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맞춤형 건기식 브랜드 '뉴:트립 맥스' 론칭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립 맥스'가 쿠팡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을 통해 공식 론칭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코스맥스바이오와 협업해 소비자가 작성한 건강 설문지를 바탕으로 필요한 영양성분을 체크하고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한다. 다이어트, 장 건강, 혈행관리, 피부관리 등 18종으로 구성했다. 별도의 부원료 없이 주기능에만 집중했으며 모든 제품이 1개월 분이다. 공식 모델로는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를 발탁했다.

분당차병원, 3개 약제 병합 담도암 치료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암센터 다학제팀은 아시아 최초로 진행성 담도암에서 3개 약제 병합요법으로 항암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진행성 담도암 환자에게 쥘티타빈, 시스플라틴, 아브락산 등 3개 약제 병합요법을 적용해 환자반응률 등이 향상된 수치를 보였다. 또한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 20명은 병합치료 후 암 크기가 줄어 수술이 가능해졌다. 연구는 중앙내과 의학저널 'Therapeutic Advances in Medical Oncology (IF 8.162)'에 게재됐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의대생 대상 실습 진행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소아심장 분야에 관심있는 다른 분야 의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의 '외상·소아심장 분야 실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최근 소아심장 실습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해당 분야에 관심은 있지만 임상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의 진료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실습에는 서울대병원 소아심장과 소아흉부외과가 참여했다. 각 과별로 8명씩 16명의 의대생이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일상을 경험했다.

코골이·수면무호흡증 야기하는 비만...체중 조절도 반드시 이뤄져야 완치 가능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척추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증상이 1시간 이내에 5회 이상 나타난다면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한다. 코골이가 심화된 질환인 수면무호흡증은 특히 복부비

만과 관련이 매우 깊다. 고도비만 남성 절반 이상이 코골이 증상이 보이고 그중 33%는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비만 여성은 33%가 코골이 증상을, 그중 12%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체내 산소 저하를 유발해 주간 졸림증, 만성 피로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뇌경색, 고혈압, 심부전증의 발생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치료에 나서야 한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이비인후과의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 중 나타나는 뇌파, 산소 포화도, 수면의 질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 수면 내시경 검사는 기도 내의 어떤 부위가 좁아지고 막히면서 코골이가 발생하는지 밝히는 검사법으로 27가지 검사를 통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무엇보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비만과도 관련성이 깊은 만큼 비만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는 사람은 비만을 개선해 체중을 조절하는 치료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비만인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전에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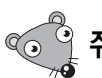


확인한 후 내원하는 것이 현명하다.

미금역 두리이비인후과의원
분당점 이종민 원장

박경희의 운수 좋은 날

9월 2일 (목) 음력: 7월 2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졌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오늘은 화개살 일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대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라.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날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많은 노력과 정성과 활동이 필요하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험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벌여놓은 일들은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청산하라.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주변인을 믿지 마라.		함부로 간간함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 법이다. 오늘은 어떠한 노력도 통하지 않는 때이다. 당신도 기력의 회복과 길한 운세를 기다려야 한다. 많은 노력과 정성과 활동이 필요하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취침 시 서남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때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오늘의 날씨			2일 (목)		
서울	30/20	인천	30/30	춘천	20/10
	20		25		18
	26		25		27
강릉	30/30	대전	60/60	전주	60/80
	19		20		22
	25		25		26
광주	60/70	대구	70/30	부산	60/60
	22		20		21
	25		24		24
창원	60/60	제주	6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1		25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24		27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5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홍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